# 심의위원회 회의록

| | |
|---|---|
| **회 의 명** | 2026년 제4회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 **회의 개최기관** | 부산광역시(문화예술과) |
| **일시 및 장소** | 2026. 7. 30.(목) 14:00, 12층 소회의실 I |
| **참석자 명단** | 김승호 위원장 외 위원 15명 |
| **회의 진행순서** | ▪ 미술작품 설치계획 안건 검토 및 토의<br>▪ 심의평가표 작성, 집계, 결과정리 및 발표, 심의결정서 작성 |
| **상 정 안 건** |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4건 4점 심의** |
| **발 언 내 용** | **<작품 1 이미지-정담(情談)>**<br>▪ 조형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중간에 원색이 배치된 세 곳이 서로 뚫려 있는 투각 형태보다는 단차를 줘서 안쪽으로 들여서 매지 마감하는 방식이 유지 관리와 안전 측면에서 더 나을 것 같음. 조형성에 큰 변형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됨.<br>▪ 제시된 구조대로 제작한다고 가정할 때, 내부프레임이 너무 부실하여 이 상태로는 해당 구조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작품의 예술적 측면은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내부보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br>▪ 중앙 내부에 철봉이나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판 구조를 뼈대로 잡아준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내부에 조명이 있어 틈 사이로 빛이 나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틈을 유지하기보다 마감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힘을 더 잘 받게 되어 안전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br>▪ 시공 관점에서 데크 위에 조각품을 설치할 때 결합 부위 마감 처리에 따라 유지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 |

로, 작품이 핑크색 부분보다 위로 올라오도록 배치해야 할 것 같음. 심의도서 23페이지(07_작품설치 시공도면)의 단면도상 경사진 곳에 설치되어 마감 시 밀착이 어려우므로, 앞서 언급한 대로 단을 높이거나 하여 작품의 형태를 살리는 방안 필요.

- 야간에 세 곳에서 빛을 쏠 때 부재의 반사 문제로 인해 관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 필요.

**<작품 2 질서와 순환>**

- 허용 하중은 **.**kN/㎡이나 실제 무게는 **.**kN/㎡로 허용 기준치에 매우 근접한 상태이므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게를 더 줄이거나 하중 분산용 기조대를 넓게 펼쳐 무게를 분산시키는 조치 필요.
- 주조형물 주변에 벤치와 작은 유니트가 너무 가깝게 배치되어 있어 실제로 앉으면 작품을 여유롭게 감상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조형의 전체적인 조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모를 줄이거나 이격거리를 조금도 확보하는 것도 좋겠음.
- 심의도서 15페이지(07.작품도면[설치방법])에서 상단 좌측의 화강석 석재 부분은 육안으로는 대리석 느낌이 나는데 관련 재료의 재원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 확인 필요. 해당 부분이 스테인리스 스틸 작업 후 우레탄 도장 마감으로 진행된 것인지 재질과 사양을 명확히 확인 바람.
- 심의자료를 보니 평택시 작품과 너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 의자와 작품 구성도 유사하고, 스테인레스 구 형태의 색깔만 틀리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 작품인 것 같음.
- 몇몇 작가들이 같은 컨셉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디자인 형태 제시하여 최종 이미지는 차별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타지역 건축물 미술작품과 결과물이 너무 유사하게 똑같이 나오는 것은 공공미술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필요.

# 심의위원회 회의록

| | |
|---|---|
| | ▪ 제출된 구조검토 내용을 보면, 현재 기준이 아닌 과거에 쓰던 방식의 지진하중이 적용되었고 풍하중 등에 대한 검토 자체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전도에 대한 구조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음. 스테인레스 스틸 3T와 화강석 석재의 경우 접합부위가 실제시공 시 접합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접합하는 형태로 도면에 그려져있음. 앵커의 근입깊이나 철근 배근 등 구체적인 시공도면이 매우 미흡하므로 철저한 보완 필요.<br>▪ 제출자료 내 중당가격표가 4년 전 자료인데, 현재 제작 시점에 맞춰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함.<br>▪ 원래는 가장 최근에 산정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작가의 경력이나 전시 이력 등이 추가되면서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상승할 여지가 있음.<br>**<작품 3 사랑과 소통의 팔레트>**<br>▪ 일방향적 작품이 가진 정면성 자체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나, 현재 CG상 도면의 설치 방향이 한쪽 동선에만 치우쳐 있어 아쉬움. 따라서 협의를 통해 주동선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도로 쪽으로 약 10도 이상 비틀어 각도를 수정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하면 좋겠음.<br>▪ 장식적인 디테일의 경우 작가의 이전 레퍼런스를 볼 때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우려는 줄었으나, 향후 사람들의 동선에 따라 관람 방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도와 방향에 대한 세심한 보완 필요.<br>▪ 지하로 내려가는 램프의 지붕 구조물의 높이가 얼마로 시공되는지가 중요하고, 작품 후면 전시 녹지의 폭도 중요해 보임. 지하차도 상부 구조물 끝단에 조각 작품이 설치될 예정이나, 상부 구조물의 높이와 설치 폭에 따라 작품이 가려지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협소한 공간에 작품이 적절히 설치될 수 있을지 사이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

# 심의위원회 회의록

| | |
|---|---|
| | 필요함. 구조물의 높이와 폭에 따라 작품이 가려질 수 있어 협소한 공간에 맞는 적절한 사이즈 검토가 필요해 보임.<br>▪ 작품의 형태가 일방향인 경우, 관람 포인트가 등 뒤나 한쪽 방향으로 지나치게 치우칠 수 있어 작품을 다른 위치나 방향으로 배치하는 방안으로 재고하는 고민이 필요.<br>▪ 거기 첨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심의도서 7페이지(03건축물배치도)에 “현장 여건에 따라 약 500~1,000㎜ 정도로 간격을 조정 예정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람.<br>▪ 심의도서 22페이지(06작품도면(시공방법))에 콘크리트 기초가 베이스플레이트보다 넓더라도 약 *.*톤에 달하는 작품 하중이 2개의 지점에 집중되어 한쪽당 약 0.5톤의 하중이 가해질 때 지하주차장 위에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반 및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림.<br>▪ 내력 기둥과 스테이를 검토한 결과, 조형물 무게가 아주 무거운 편이 아니고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세 곳 마련되어 있어 풍압이 분산되므로 안전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br>▪ 기초판이 넓어 조형물 자체의 무게로 인한 지내력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기준을 반영한 구조검토서가 아니어서 근본적으로 설계 검토에 한계가 있으며, 구조계산서에 베이스 등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정성을 단정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형물 자체가 건물에 비해 매우 가벼운 편이므로 지내력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br>▪ 심의도서 23페이지(06작품도면(시공방법))에 제시된 색상 차트가 구체적인 도료 색상 번호 없이 원색적인 컬러 나열 수준에 그쳐있고, 향후 실제 사용될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설명으로 처리되어 있어 우려됨. 색감과 조색이 매우 중요한 작품인 만큼 작가의 권한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도료 번호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 |

이 염려스러움.

**<작품 4 움직이는 땅(Moving Land Art)>**

- 해당 작품 설치계획은 심의도서 10페이지 “인간은 결국 흙을 떠나 살아갈 수 없다.”는 자연과 호흡하는 듯한 텍스트를 사용하여 자연친화적 개념을 강조하고 있으나, 심의도서 16페이지 FRP 특수도장, 인공잔디 혹은 인공조형와 인공잔디 등 '가짜 자연'을 재료로 사용하는 점에서 동시대 미술에서 생태를 다루며 가짜 자연을 동력 장치로 띄우는 것 자체가 작가적인 입장에서 모순된 철학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함.
- 현장위치가 남천동으로 근처 바다로부터의 해양 환경 특성에 따른 염분·침수 피해 우려, 리프트 장치 내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과부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대응 방안이 누락되어 보완 필요.
- 열닫힘 구조 및 상부 조형물 설치에 따른 하부 프레임(C부분 등)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누락되어 있어 구조물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므로, 상부 조형물을 받치는 각파이프 등 하부 부재에 대한 면밀한 구조검토서를 필히 첨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되어야 함.
- 수상 이력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가이고, '땅이 살아 움직인다'는 개념 자체도 독창적이며, 공공미술로서 시각적인 주목도나 화제성은 높으나, 유압식 리프트를 이용한 기계 체험 시설에 가까워 공공미술의 성격에 의문이 듦. 유압식 리프트의 특성상 어린이의 손·발가락 협착이나 장난감 끼임 등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간격을 좁혔다고는 하나 그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토사가 부착된 채 수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공공미술의 특성상 빗물 유입, 무게 증감, 잡초 유입 및 뿌리 내림 등에 대한 재료 내구성 보완 설명이 부족. 또한 안전을 이유로 펜스, 유리 커버, CCTV를 설치하려는 계획은 '직접

체험하며 가치를 높인다'는 작품의 핵심 개념과 몰입감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인공지반 구조 검토가 부족하고 전원 장치 오류 발생 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유사 설치 사례로 제시된 사업마저 이벤트성 행사의 근간으로 실효성이 낮음.

- 작품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 기간에 사람들이 즐기고 가는 것이 아닌 반영구적으로 자리잡을 공공 시설물로서 유압식 리프트의 안전성, 과거 정원박람회 등 유사 사례에서의 구체적인 관람객 수, 사고 및 작동 오류 발생 빈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움.
- 설치 위치가 지하 주차장 진입부 상단이며, 대표 이미지가 AI로 제작되어 현실성이 떨어짐. 작가가 사고 예방을 위해 틈새를 5㎝ 이하로 줄이겠다고는 했으나, 과거 정원박람회 사례 영상에서 확인된 위험한 장면들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사고 위험성이 높음. 또한, 유지보수 관리 계획으로 2~3년에 한 번씩 유압식 리프트를 전량 교체하겠다는 계획은 조형물 설치 분야에서 전례가 없고 교체 비용 확보 방안 등도 불분명하여 현실성이 떨어짐.
- 박람회에서 설치가 되면 이슈가 되고 작가의 스타성 때문에 화제가 될 것 같은데,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영구적으로 설치된다고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음. 또한 너무 급박하게 자료를 준비한 건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작품 설명판의 경우도 통행에 지장이 있는 위치에 던져놓은 것 같음. 준비가 미비해 보임.
- 하중 측면에서 기존의 고정하중뿐만 아니라 관람객 어느 정도의 인원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무게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리프트 작동 시 기계가 뒤틀려 내려가다 걸리는 현상이 가장 크게 문제라고 생각함. 또한 설치 위치가 건축물 사이의 창문 인근이고 사선 조명이 배치되어 있어, 인근 근무자나 거주자의 눈부심 등 시각적 피해를

| | |
|---|---|
| |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적절하지 않음.<br>▪ 안전과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에 100% 공감하지만, 안전하기만 하여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조형물보다 약간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창의적인 시도라면 구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br>▪ 작품을 보면 시립미술관 같은 전시 공간에서는 훌륭한 작품인데 공공미술로서는 보존성이 담보되지 않음. 2~3년에 한 번씩 유압프레스를 전량 교체하겠다는 계획은 실제 수행하기 불가능한 공수표를 날리는 것으로, 이처럼 실효성 없는 내용을 심의도서에 포함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br>▪ 실제 공공주택 미술작품 현장에 나가보면 입주자들이 조명에 대한 비용 부담이 부담스러워 조명을 꺼놓는 사례가 많은데, 현장조명 계획이나 24시간 CCTV 중앙통제 감시 역시 건축주나 건축물 이용자의 전기를 사용하고 운영 인건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어, 작가의 일방적인 의지만 담긴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판단됨.<br>▪ 움직이는 조형물이라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고 신선하며 향후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고적 · 이벤트성 성향이 강해 공공미술에 요구되는 지속성을 갖추기에는 환경적 어려움이 많음. 현재의 방법론은 좀 부적절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안전성과 지속성이 보완된 형태로 발전한다면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임.<br>▪ 부산에 예전부터 계속 누적된 미술작품들이 계속 올라가는 게 있는데, 기존의 진부한 조형물들과 달리 신선한 충격을 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공공미술이 반드시 영구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됨. 향후, 해당 병원시설의 이전이나 소유권 변동에 따라 작품이 함께 움직이거나 변화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작가의 손을 떠난 건축물 미술작품은 건 |

| | |
|---|---|
| | 축주 소유 작품이 되므로 작품성을 기준으로 향후 상생하게 되는 가치를 가지게 됨. 작품의 영속성과 유동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깊이있게 논의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음.<br>▪ 유명한 작가임에도 심의자료가 미흡하여 이번 심의 통과는 어렵겠지만, 뱅크시 같이 어떤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작품들도 있어서, 이 작가 역시 일정 부분 위험 부담을 안고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공공미술의 영역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봐야 할지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음.<br>▪ 제출자료를 보면 작품에 대한 심의도서보다 박람회 자료가 더 잘 되어 있음.<br>▪ 철제 펜스를 두른 이미지도 있는데 작품을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구상을 하는지 검토 필요.<br>▪ 제시된 심의 도서는 공개공지 위치 및 도면 내용이 실제와 전혀 다르고,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나 투시도 등이 누락되어 있어 15점 배점인 '건축물과 환경의 조화' 항목을 정상적으로 평가하기가 불가능한데, 이러한 심의 도서의 심각한 미비와 오류는 전례가 없어 의아하고 당황스러움. 작품을 그대로 평가하기보다 주무 부서를 통해 작가에게 정확한 심의 도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번 심의는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br>▪ 주무부서에서 직접 심의를 할 수 없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는 만큼, 심의평가표의 비고란이나 항목별 평가, 종합의견 기재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br>▪ 이번 절차가 단순 심의를 넘어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는 심사 방식인 만큼, 도서가 불충분함에도 작품성만으로 통과될 경우 향후 큰 파동이 야기될 수 있음. 타 위원회에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심의 도서가 제출될 |

# 심의위원회 회의록

| | |
|---|---|
| | 경우 평가를 거부하는 것이 허다하므로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평가는 좀 우려됨.<br>▪ 담당 주무관이 수차례 보완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인 만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올린 것이니,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관한 판단 보류나 최종 결정 여부를 논의해 주시면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음.<br>▪ 주무기관은 제출 서류의 페이지수, 규격 등 정량적 요건만으로 부적격을 판단해 보완을 요청할 뿐, 내용적 적정성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오랜 시간을 들여 자유토론을 거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유는 이러한 부실한 부분을 걸러내기 위함이므로, 서류 상태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들이 직접 0점을 부여하고 사유를 기재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br>▪ 그래픽 수준이나 사인물이나 주변 정황에 대한 표현 등을 볼 때 현재 제출된 도서는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아쉬움이 있음. 이번 기회에 미비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여, 다음 심의에서 다시 한번 정정당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람.<br>**<심의 결과>**<br>▪ 미술작품 설치계획 2건 2점 작품 중 2점 가결, 2점 부결되었으며, 가결 안건의 경우 기재의견 과반수 미만으로 조건부·권고 사항은 없음.<br>▪ 부결 안건의 경우 과반수 이상 기재 의견이 있으므로 심의결정 사항으로 통보함.<br>▪ 그 외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평가 기재의견은 정리하여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 **가결 2점, 부결 2점** |